대승도에 드는 세 가지 경우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㉞ 위신력

〈원문〉 그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밖에도 다른 큰 이익이 있사오니,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이 이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여 보아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 부류의 선남자와 선여인은 깊은 이치에 대하여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 큰 공덕을 내어 대승의 도에 들어갑니다. 이 세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이란,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과, 선남자와 선여인이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과, 선남자와 선여인이 모든 깊고 깊은 법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세존께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남자와 선여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생들로서 저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허망한 말에 이끌리어 바른 법을 등지고 여러 외도들의 짓을 익혀 종자가 썩어버린 이들은 마땅히 국왕의 힘으로나 하늘 사람과 용과 귀신의 힘으로써 조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의 참된 제자에 대하여 설한 다음 이 장에서는 대승도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말하려 하니 부처님이 어서 말해 보라고 재촉을 한다. 여기서 설주(說主)의 역할을 하는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설한다고 말한 점이 특별한 뜻이 있다. 〈화엄경〉에서는 각 품(品)마다 여러 보살들이 등장하여 설주가 되는데 이때 꼭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설한다는 경문의 서술형식이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위엄 있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힘이 설주에게 입혀져 법이 설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강조하는 뜻에서 설해지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믿음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믿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신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원래 믿음이란 범어(梵語) 스라다(sradha)를 번역한 말인데, "아, 그렇구나"하고 긍정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란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는 것인데 이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가피력(加被力)에 의지하는 신앙 정서가 깔려 있다. 이른바 기도나 참회 등의 의례(儀禮)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의지하면서부터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그 힘을 의지해 중생이 안락과 이익을 얻고, 수행을 완성해 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력(自力)으로 하는 수행에도 타력(他力)의 가피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타력을 우러러 희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정서인 것이다.

세 부류의 설명에 법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과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과 부처님께 미루어 부처님은 아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불언량(佛言量)에 해당한다. 중생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직접 보고 인지하는 것을 현량(見量)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미루어 아는 것을 비량(比量)이라 한다. 산 너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 고 아는 것과 담장 너머 뿔만 보고도 소가 있는 줄 아는 것이 모두 비량이다. 그러나 현량과 비량에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 풀섶에 버려진 새끼토막을 뱀인 줄 아는 변계소집성의 미혹에 의한 착각이 있고 물안개를 연기로 잘못 알면 불이 나지 않는 것을 불이 났다고 여기게 된다. 이럴 때 현량과 비량을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이라 한다.

불언량(佛言量)은 성언량(聖言量)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므로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 불언량에는 사(似)자가 붙을 수 없다. 이 장에서 밝힌 세 부류의 사람은 대승도(大乘道) 곧 불도(佛道)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해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마음 변하려면 선정·지혜 닦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양약(良藥)

불자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대의왕(大醫王)입니다. 부처님께서 는 〈법화경〉을 통해서 중생들의 전도몽상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양약을 만들어 우리 곁에 놓아두시고, 우리들이 먹고 낫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그 양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 갖가지의 처방전과 약을 팔만대장경을 통해 내려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무명의 독한 업식에 중독되어 전도몽상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본래의 청정한 진여본성(眞如本性)을 회복하는 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고 그 양약을 믿고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몽상을 깨뜨리고 진여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 하는데 이 수행은 요동치는 생멸심을 멈추고 진여본성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선정은 '고요' 에 비유하고 지혜는 '밝음' 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선정수행은 헐떡이는 분별망상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밝아져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밝음과 고요가 조화를 이룰 때 선정과 지혜는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어 고요하면 지혜가 또렷해집니다. 지혜가 또렷하면 마음은 이미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요와 지혜는 둘이 될 수가 없듯이 선정과 지혜는 항상 함께 흐르므로 정혜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의 모습 또한 적정(寂靜)한 체상(體上)에 항상 반야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올바른 정혜쌍수를 위해서는 무념(無念)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념의 실천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는 돈황본 〈육조단경〉 제17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에서 하택 신회(684~758)는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망념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일어난 망념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망념은 없어지고 무념이 된다[念起覺知 覺知卽失]"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념의 실천은 일어난 망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정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念不起]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은 분별망상하는 망념만 없을 뿐이지 무념체상(無念體上)에서 또렷이 비추고 아는 반야지(般若智) 마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문화연구〉 '돈황본 〈단경〉상의 心病에 대하여' 에서 혜능 대사의 좌선법을 인용하여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능 스님은 염불기(念不起)의 무념(無念)과 염불기의 무념체상(無念體上)에 작용하는 반야지(般若智)를 둘로 보지 않고 일체(一體)로 보기 때문에 내외의 어떠한 대상경계에도 걸림이 없이 무애자재한 좌선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혜능 스님은 이미 일어난 망념을 털고 닦는 좌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좌선법 즉 염불기(念不起)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㉞ 학인의 경 2

알려는 마음 안다는 마음 버려야 수행

그래서 존자 아난다는 싸끼야 족의 마하나마에게 말했다.

"마하나마여, 이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계행을 지키고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고 식사하는 데 분량을 알고, 항상 깨어있으며, 일곱 가지 올바른 성품을 갖추고, 보다 훌륭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제공하는, 네 가지 선정을 뜻대로 곤란 없이 어려움 없이 성취하는 자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과 알고 있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수행이다. 그렇다면 수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해야 한다. 뭇 삶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활용할 쓰임새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그것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동일한 흐름을 갖다보니, 수행도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 여겨 책과 공책, 필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습득해서 알아내는 것으로 착각한다.

수행은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익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다.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찰이면서, 무엇을 '나' 라고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한다. 이 '나' 라는 것이 범인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범인더러 범인을 찾으라 하니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세상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듯이, 수행도 다르지 않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려하는 마음은 나의 몸에 시비심을 없애고, 대상에게도 시비심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중국의 남악 회양 선사가 무조건 앉아서 좌선만을 고집하는 마조 스님을 보고 곁에 와서 기와를 갈았다. "무얼 하시는 것입니까?" / "거울을 만들려 한다." / "기와를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되겠느냐?" / "어찌해야 합니까?" / "소가 끄는 수레를 가게 하려면 채찍으로 수레를 치겠느냐 아니면 소를 치겠느냐?" 이 말에 크게 깨닫는 바가 생겼다는 일화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조 스님은 범인을 찾았다. 지금까지 '나' 라고 하던 놈이 내가 아님을 알아, 수행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주인이었던 이가 객이 되고, 객인 줄 알았던 본질은 주인이 된 것이다. 객이 주인이 아님을 알아버렸으니, 비로소 제대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결론을 보고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생겼다' 는 데 초점을 두려 하겠지만, '무조건 앉아서 좌선만을 고집하는' 이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회향 선사가 마조 스님이 기본적인 수행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 마지막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 좌선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바깥에 시비심이 사라져 계행이 지켜지고,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할 것이며, 식사하는 데 분량을 알 것이며, 항상 깨어있음을 알 것이며, 일곱 가지 올바른 성품을 갖추는 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보다 훌륭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

앎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없다. 몸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를 바란다. 무언가를 알게 되고, 몸으로 체험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행위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하지만 본질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 되어 본 적이 없기에, 누군가가 알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는 이제 함이 없다. 처음 수행할 때, 구하고, 알려 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쉬고, 이제 그럴 필요 없는 완전한 놓여짐의 수행을 한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제29회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삼보 귀의하옵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넉넉한 불령산 자락의 품에서 좋은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히 총동문회소식을 알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2시

장소 자양전

문의 054-432-2652

안건 1. 총동문회 운영및 발전방안
2. 장학금 지급
3. 경조사 지급
4. 기타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